

나는 지금 자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 아이와 필(feel)이 통하는 부모 되기

부모넷 [www.bomonet.or.kr](http://www.bomonet.or.kr)

요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부족한 것 없는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불만은 많고 제멋대로이기 일쑤. 어려운 공부나 열심이 있으면 풍요로만... 아이와 친구처럼 지내겠다고 현명 먹은(?) 부모도 그 방법을 몰라 시행착오를 겪기 일쑤다.

### 요즘 아이들, 정말 다루기 힘든 걸까?

부모 세대가 성장할 때에는 문화 코드가 너무나 다른 아이들. 어른이 말을 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건만 자기 주장이 강해 싫은 건 죽어도 안한다. 버릇없고 안하무인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다.

권위적이었던 내 부모와는 달리 아이를 이해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아이들은 거부만 한다며 속상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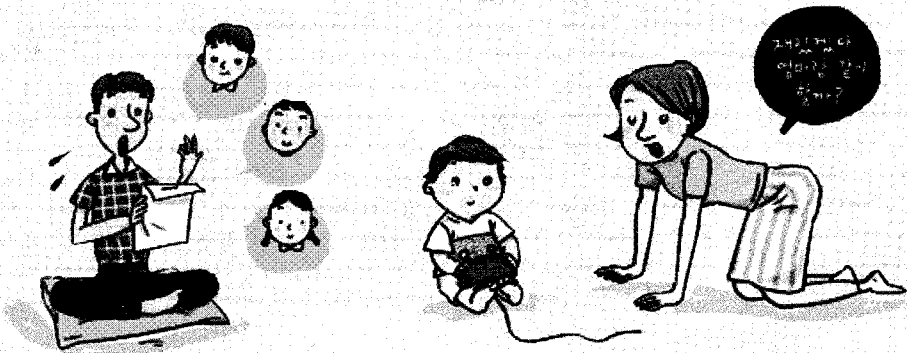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자식들과의 '대화 트기'에 성공하고 필(feel)도 통하는 부모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신세대들이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은 것.

얼마 전 한 초등학생이 '꼬불이'라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만화책 출간에 성공했다. 이 책은 곧 일본으로 수출될 전망이다.

이렇듯 자신만의 꿈과 커리어를 쌓으며 화제가 되고 있는 신세대 아이들. 좀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의 뒤에는 아이를 이해하고 용기를 북돋아준 특별한 부모들이 있었을 것이다.

### 내 아이만큼은 아닐 거라는 착각

왕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내 아이가 그 대상이라고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학원 폭력에 대한 뉴스를 들어도 내 아이가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한다.



'요즘 아이들', '요즘 세대' 라는 말 속에 내 아이는 포함시키지 않는 부모들 밑에서 아이는 대화를 포기하고 들리지 않을 방법만 찾게 된다.

### 부모의 첫 번째 관심은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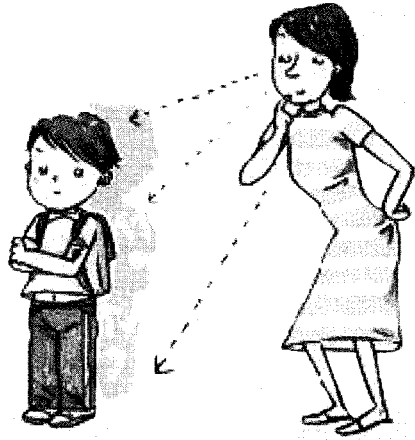
부모들은 어디를 데리고 가더라도, 무엇을 사주더라도, 무엇을 시켜도 결국 성적을 오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다. 물론 아이들에게도 성적은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관심사 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친구관계, 또래문화, 패션, 운동, 취미 등 아이들의 다양한 관심사 중에 하나 일 뿐이다.

###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싫다는 아이에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요구해놓고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거야' 라고 말한 적은 없는지. 물론 아이가 원하는 것만 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아이가 잘된다는 게 뭔지 부모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걸까? 그 기준은 우리 세대의 가치를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를 게 분명하다.

### 부모도 아이도 서로 너무 바쁘다

현대인은 바쁘다. 부모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다. 하루 한끼 식사를 다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서로들 각자 바쁘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살을 비비고 서로를 느낄 시간이 없고 대화는 단절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공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에 긴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한다.



### 내용 대신 형사어 코드를 맞추자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는 상대방의 태도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얼마나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지, 관심을 가지는지에 따라 말하고 싶어지기도, 싫어지기도 한다.

내용에 공감하고 설득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귀기울여 들었는지 자문해보라. 다른 일을 하며 들었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듣는 척만 하지는 않았는지 반문해보라.

### 먼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아이가 '엄마, 오늘 학교 안 갈래' 하고 말했을 때 부모들은 '왜 그럴까? 보다 '별 소릴 다 듣네. 학교를 왜 안 가' 하는 반응을 보인다.

세상에 '반드시' 라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럴 때 덮어놓고 '안돼' 라고 말하기보다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학교까지 못 갈 정도로 심각하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줘' 하고 믿는 자세를 취하고 물어주는 것이 중요하다.